

칠레, 돈육산업 개황

칠레의 돈육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3년도 돈육 생산량은 1990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나는 등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 생산 확대에 따라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대아시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 증가의 요인으로서는 가축 위생상의 이점, 즉 칠레에서는 사방이 자연에 둘러싸인 지리적 환경 덕분에 최근 구제역이나 돈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돈육산업 뿐 아니라 농축산업 전반에 유리한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대아시아 수출을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는 장거리 수송비와 수송 시간 등의 불리한 요소도 있다. 칠레의 돈육산업의 개황, 즉 돈육의 생산, 유통, 소비의 동향 등을 정리한다.

1. 일반 개황

칠레는 남미대륙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남북 길이는 약 4,200 km로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에 필적한다. 국토 면적은 약 760,000 km²로 우리나라의 7.6배에 달한다. 북부는 사막 지대, 남부는 빙하 지대이며, 서부는 태평양, 내륙에는 안데스산맥이 종단하고 있다.

사계절이 있지만, 적도 근처부터 남극까지 이어지는 긴 지형이기 때문에 한 나라이면서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칠레 중앙부는 온난한 기후 조건에다 관개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국내의 주요 농축산업 지대로 자리잡고 있다.

대륙의 일부이지만 주변지역과는 격리된 지형이어서 동식물의 방역 면에서는 천연의 국경선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질병 진입이 차단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행정구역은 1974년 이후 12개의 지구와 수도권지구로 구분되어 있고, 각 주에는 시와 군이 있다. 인구는 약 1,577만 명(2003년 6월 현재)으로, 수도 산티아고가 있는 수도권지구는 6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의 칠레의 국내 총생산(GDP)은 664억 달러이고, GDP 실질 성장률은 199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국내소비 회복과 해외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의한 외수 경기를 바탕으로 회복세로 돌아서 2003년에는 전년대비 3.3%로 전년의 성장률 2.1%를 웃돌았다.

칠레의 주요 산업은 동·철 등의 광업, 수산업, 축산업, 과일·감귤류, 소맥, 와인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2003년 무역동향에 따르면, 수출 총액은 전년대비 15.8%가 증가한 210억 4,600만 달러, 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180억 3,040만 달러로 30억 1,5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칠레 농업부 농업정책국(ODEPA)에 따르면, 2003년도 농림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14.5% 증가한 59억 3,700만 달러로, 수출액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칠레 경제 전체에서 농림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림업 수출액의 내역을 보면, 곡물과 과일 등을 포함한 농업이 전체의 55.9%, 임업이 37.3%, 축산업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 수출액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전년대비 42.6% 증가했고, 게다가 1995년과 비교하면 약 4배로 늘어나 농림업 전체로 보아도 뚜렷한 성장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포도, 펄프, 와인, 목재, 사과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돈육은 전년대비 57.0%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1 칠레 행정구분



표 1 칠레의 사회·경제지표, 2002년

구분	단위	칠레	일본
총면적	천 ha	75,663	37,789
농지면적	천 ha	15,242	5,190
인구	천명	15,774	127,654
총취업인구	천명	6,480	68,275
농업취업인구	천명	985	2,454
농업취업인구비율	%	15.2	3.6
농업총생산	억달러	664	39,835
1인당 국내총생산	달러	4,255	31,277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	2.1	1.2

자료 : FAOSTAT, 세계의 통계, 2004

2. 돈육 수급

2.1. 생산 동향

칠레의 식육 생산은 1990년대의 경제발전에 따른 식육 소비 증가로 연평균 6.5%가 증가하는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돈육 생산량은 199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수요 증가로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량 중 약 20%가 수출된다.

또, 수출은 2000년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은 전년보다 35.1% 늘었고, 그 중에서도 일본이 최대의 수출 상대국이 되고 있다. 돈육 산업에는 1998~02년 5년간 약 2억 5,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그 결과 기술 수준과 생산 효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이 촉진되었다. 돈육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 뿐 아니라 수송이나 서비스 등의 간접적인 고용까지 포함하여 현재 약 1만 8,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2 각국의 양돈 주요 통계 비교

구분	칠레	일본	미국
생산			
돼지사육두수(만두)	212.1	972.4	6,038.9
돼지와 가축두수(만두)	390.0	1,639.6	10,077.6
지육중량(kg/두)	93.7	77.7	90.2
생산량(천톤, 지육 기준)	365.3	1,274	8,809
소비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9	11.6	23.5
수출	제품중량기준	지육기준	지육기준
수출량(톤)	61,604	6	779,000
생산량대비 비율	16.9	-	8.8
수입			
수입량(천톤)	0.195	1,112.4	538.0

자료 : ODEPA, 「축산통계」, 「식육유통통계」, 「식료수급표」, 「무역통계」

USDA,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

주 : (1) 돼지 사육두수는 칠레 2002년 6월 30일 현재, 일본 2004년 2월 1일 현재, 미국 2003년 12월 1일 현재

(2) 그 외의 수치는 2003년

(3) 칠레의 1두당 지육 중량은 생산량을 도축두수로 나눈 것

2.1.1. 양호한 입지조건

양돈 입지로서 보면, 위생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 이동이 자연 조건에 의해 차단되어, 방역이 쉽고 양돈 뿐 아니라 농축산물 생산에 큰 자연혜택을 받고 있다. 전염 경로의 하나인 공항에서는 입국시 모든 수하물을 검사하는 등의 방역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돼지의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칠레 농업부 농목청(SAG) 담당자에 의하면, 사육 호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도 지리적인 조건도 유리하게 작용해 비교적 단기간에 전염병을 박멸할 수 있다고 한다.

2.1.2. 사육 및 생산 동향

양돈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수도권지구와 이에 인접한 제6지구인 랑카과주이며, 전체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2002년 6월말 현재)은 각각 18.4%, 68.0%를 기록하고 있다. 또 번식 모돈 두수를 보면 수도권지구가 18.6%, 제6지구가 6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양돈 경영수가 급격히 감소해, 1990년에는 모돈 1,000 마리 이상의 규모의 양돈 경영수가 322개였는데, 2003년에는 151개, 2004년에는 141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번식돈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종을 중심으로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태지(PSE 돈육) 등의 문제는 유전 개량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 도축 두수로는 수도권지구와 제6지구에서 각각 전체의 36.0%, 56.1%를 기록해, 이 두 지역에서 국내 전체의 90% 이상이 도축되고 있다.

주요 생산지역은 북부의 건조지대 남쪽의 비교적 온난한 지역이다. 이러한 양돈 지역에서 남하함에 따라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남극으로 이어져 양돈 뿐 아니라 거주지로도 적합해 국내소비에도 유리하다.

또, 대소비지인 수도 산티아고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남미 서해안 중에서도 최대급의 항구인 발파라이소 항에서 120km, 산 안토니오 항에서도 10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 기후조건 뿐 아니라 소비, 사료 물류의 관점에서도 양돈 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용우 및 낙농은 칠레 중심부로부터 약간 남쪽의 비교적 서늘한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3 주별 돼지 사육 두수, 2002년 6월 30일

	전체사육두수		번식용 모돈		비육돈	
	두수(두)	%	두수(두)	%	두수(두)	%
제4지구	90	0.0	37	0.0	50	0.0
제5지구	33,845	1.6	3,721	1.9	30,078	1.6
제6지구	1,441,189	68.0	130,433	67.0	1,308,999	68.1
제7지구	86,120	4.1	7,947	4.1	77,983	4.1
제8지구	146,631	6.9	13,889	7.1	132,555	6.9
제9지구	23,242	1.1	2,336	1.2	20,807	1.1
수도권지구	389,466	18.4	36,235	18.6	352,698	18.3
	2,120,613	100.0	194,598	100.0	1,923,1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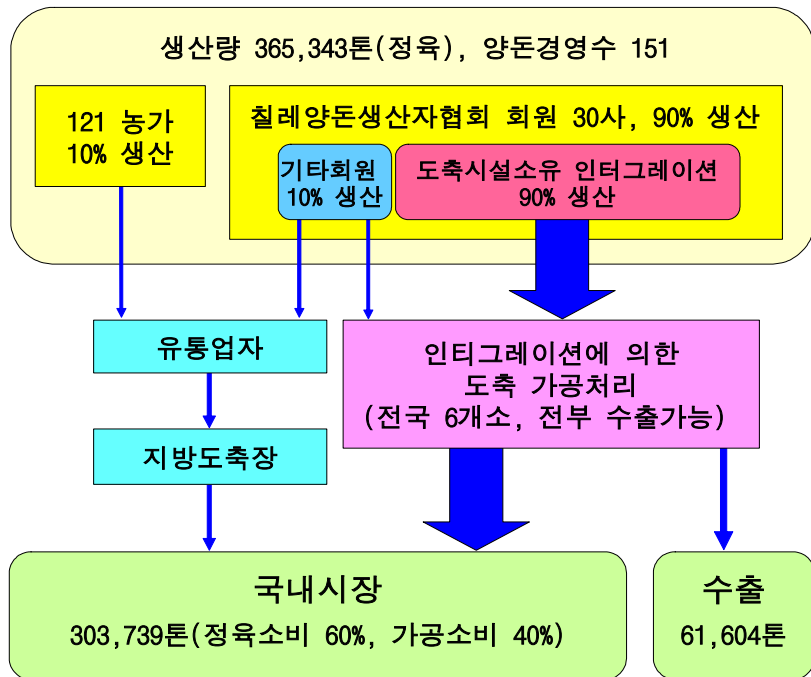
자료 : ODEPA

표 4 주별 돼지 도축두수, 2002년

주	두수(두)	%
제1지구	1,256	0.0
제2지구	526	0.0
제3지구	33	0.0
제4지구	1,763	0.0
제5지구	6,739	0.2
제6지구	2,146,787	56.1
제7지구	141,788	3.7
제8지구	48,839	1.3
제9지구	58,097	1.5
제10지구	44,210	1.2
제11지구	664	0.0
제12지구	459	0.0
수도권지구	1,376,095	36.0
합계	3,827,256	100.0

자료 : ODEPA

그림 2 칠레 돈육유통경로, 2003년



2.1.3. 도축 동향

최근 15년 동안 도축 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34% 증가했다. 또 1마리 당 평균 출하중량은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3년 79.8kg(지육 기준)에서 2003년에는 93.7kg으로 10년 동안 17%나 증가했다. 수출용은 175~180일의 비육으로 생체 중량 110kg 정도로 출하된다. 이에 대해 칠레의 일반 돼지는 160일의 비육으로 약간 작다.

온난한 기후 조건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칠레는 돈육 생산의 계절 변동은 없고, 연중 안정공급이 가능하다.

2.2. 생산 구조

국내 생산량의 90%가 국내 비육업체로 구성되는 칠레 양돈생산자협회(ASPROCER)의 30개 회원에 의해 생산된다. 그 대부분이 인티그레이션화된 대규모 기업이고, 나머지 10%는 경종과 복합 경영을 하거나, 음식 찌꺼기 등으로 사육하는 소규모 양돈 농가이다.

인티그레이션화에서 앞서가는 양계 부문에서는 애그로 슈퍼 등 대기업 4사에 의한 생산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여 과점화가 양돈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양계 인티그레이션 생산기지는 제5지구와 제6지구 집중되고 있어 주요 양돈 지역과 겹친다.

칠레 돈육업계 1위인 애그로 슈퍼는 최초로 양계 인티그레이션을 시도해 항구로부터의 사료 수송이나 질병 관리 등의 기술력, 제품 판매면 등 생산 및 유통단계의 기반이 벌써 정비돼 있었다. 이런 점들이 양돈 부문으로의 업무 확대를 용이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비교적 단기간에 국내 돈육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화가 진행된 이유의 하나로는 닭고기 및 돈육 생산에서의 사료 구입이나 제품 판매면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최대한으로 발휘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표 5 돈육 생산량 및 수출입량 추이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생산량	160,814	172,410	184,698	208,703	235,014	243,693	261,477	303,003	350,721	365,343
수출량	4,067	2,119	2,162	10,098	12,852	7,525	12,982	24,555	45,592	61,604
수입량	74	821	885	901	1073	3187	1854	296	584	195

자료 : ODEPA

2.3. 생산 비용

생산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ASPROCER에 따르면 칠레의 생산비용은 미국과 멕시코의 중간 정도라고 한다. 비용의 형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슷하며, 인건비 부분이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또 컨설턴트 회사가 실시한 사육 두수 600두의 번식·비육 일관 경영을 사례로 든 추계에 따르면, 사료 비용이 전체의 79.4%를 차지하고, 시설·기계비가 13.2%, 노동비가 3.0%, 기타가 4.4%라고 한다.

ASPROCER에 따르면, 사료는 옥수수의 약 70%, 대두의 거의 전량을 수입(관세 6%)에 의존하고 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가 70~80%, 미국이 20~30%를 차지하고, 대두는 브라질, 볼리비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비용은 사료 곡물의 국제 가격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러나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요인은, ① 고도의 생산기술, ② 저지가와 초기 설비투자 저렴, ③ 저임금, ④ 풍족한 자연 환경에 의한 저가의 위생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높은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연간 모돈 1두당 산자(産子) 수를 들 수 있다. ASPROCER에 따르면, 연평균 2.43회의 출산으로 산자 수는 25 두이다. 대규모 경영에서는 적어도 24마리 출산이 평균 수준이다.

인건비는 도축라인작업 종사자 등의 월수입이 400~750 달러 정도이므로 평균 500 달러 전후이다. 연간 모돈 1마리당 산자수(産子數)도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밤새 순찰을 통해 사고사를 방지하는 등 치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저임금은 도축부문을 포함해 저비용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4. 수출입 동향

칠레의 돈육 수출량은 대부분이 냉장 또는 냉동육으로, 가공품은 극히 일부이다. 1998년부터 2003년간 수량 기준으로 4.8배, 금액 기준으로는 5배로 증가해 2003년의 수출량은 6만 1,600톤, 수출금액은 약 1억 5,020만 달러에 이르렀다.

금액 기준 내역을 살펴보면, 대일본 수출이 62.1%, 대한민국 수출이 19.6%로 대아시아 수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멕시코 수출이 9.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기타 수출 상대국으로는 코스타리카, 쿠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남미 국가를 비롯하여,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지역에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수출량 증가의 요인으로는 높은 위생 수준으로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칠레는 구제역백신 비접종 청정국인 동시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중요 가축질병리스트 A¹⁾인 돈 콜레라에 대해서도 청정국이어서, 일본이나 멕시코 등 위생 조건의 요구도가 높은 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수입량은 최근 10년 동안 수백 톤에서 3,000 톤대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수출이 급격하게 확대됐던 2000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수입량은 195톤으로, 주로 가공육으로서 캐나다에서 전체의 약 80%를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에서 보면 돈육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칠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브라질이 위생 관리의 향상에 노력하는 등 향후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도 예상된다.

1) 중요 가축 질병 리스트 A : 사회경제상 또는 공중위생 면에서 중요성이 높고, 매우 심각하고 국경에 관계없이 급속히 전파되는 능력이 있으며, 가축 및 축산물의 국제 무역상 중요성이 높은 전염성 질병. 구제역, 돼지 콜레라, 뉴캐슬병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생체 수출에 대해서는 번식모돈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송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돈(子豚)을 포함한 비육돈의 수출은 없다고 한다. 번식 모돈의 주요 수출지역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이다. 칠레의 수출용 도축시설은 2004년 10월 현재 27 시설이 있고, 그 중 6곳이 돼지를 취급하고 있다.

2.5. 소비 동향

1986년 이후 칠레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인당의 식육 소비량은 1993년부터 2003년간의 10년 동안 약 47%나 증가하였다.

표 6 국별 수출량 추이(신선육, 냉장·냉동, 중량기준)

단위 : 톤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점유율 (%)
일본	0.0	0.1	0.0	899.7	3,712.0	3,553.4	7,623.8	11,211.0	22,553.3	29,577.2	48.0
한국	0.6	2.1	0.0	1.0	0.0	0.6	0.0	0.0	3,549.7	13,732.0	22.3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6,322.5	12,213.7	10,108.9	16.4
EU	0.0	0.0	0.0	0.3	0.2	0.1	0.0	49.6	4,067.1	4,065.8	6.6
기타	4,066.8	2,116.6	2,161.5	9,196.9	9,139.3	3,970.5	5,358.1	6,972.1	3,207.8	4,119.5	6.7
합계	4,067.4	2,118.7	2,161.5	10,097.8	12,851.5	7,524.6	12,982.0	24,555.2	45,591.5	61,603.6	100.0

자료 : ODEPA

표 7 국별 수출액의 추이

단위 : 천달러(FOB 기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점유율 (%)
일본	0.0	0.9	0.0	3,961.9	14,641.8	16,205.5	35,602.1	46,717.1	48,942.7	93,217.5	62.1
한국	2.2	8.1	0.0	3.6	0.0	1.1	0.0	0.0	7,663.8	29,506.5	19.6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11,358.7	16,488.5	14,408.7	9.6
EU	0.0	0.0	0.0	1.5	1.7	0.0	0.0	71.3	5,700.9	7,268.9	4.8
기타	10,194.7	5,774.7	5,396.2	18,760.1	15,197.7	7,534.5	9,248.8	10,894.4	26,767.6	5,802.6	3.9
합계	10,196.8	5,783.8	5,396.2	22,727.0	29,841.3	23,741.2	44,850.9	69,041.5	105,563.5	150,204.3	100.0

자료 : ODEPA

2003년의 내역을 보면, 닭고기가 가장 많은 28.8kg, 쇠고기가 24.1kg, 돼지고기가 19.9kg의 순이다. 최근 10년 간의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면, 쇠고기는 20% 증가, 돼지고기는 90% 증가, 닭고기는 55% 증가로, 돼지고기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 돈육의 소비 내역은 60%가 신선육, 40%가 햄·소세지이다. ASPROCER에서는 2010년에는 연간 1인당 식육 소비량이 90.0kg이 되고, 그 중 돼지고기는 28.0kg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DEPA에 의하면 돈육은 소비자에게 쇠고기보다 오히려 닭고기(White meat)에 가깝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를 소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흰살 고기’로서 소비자에게 닭고기 같은 저콜레스테롤이라는 점 등을 호소한 돼지고기 소비 확대 캠페인이 펼쳐지던 시기가 있었다. 칠레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지지를 받은 것 같다. 또 ODEPA에서는 돈육, 닭고기 모두 생산의 인티그레이션화가 진행됨으로써 저비용으로 안정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가격 경쟁력의 향상도 소비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

산티아고 시내의 대형 할인점에서는 돼지 껍질, 지방, 족발로부터 등심, 안심에 이르는 많은 부위를 소매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문 소매점에서는 머리, 꼬리, 내장류까지 돼지의 거의 모든 부위를 판매하고 있다. 또 마을 식당에서는 족발과 같은 메뉴도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칠레는 소득 격차가 크고 그에 따라 선호하는 소비 부위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식용부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또 구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칠레에서도 햄 제조용 넓적다리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심 가격이 싼 편이다.

인구 1,577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이러한 국내의 다양한 소비 형태는 수출 경쟁력을 떠받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닭고기에 대해서는 비육업체의 물류 담당자들은, ① 상품이 작아 물류가 용이하고, ② 비교적 저가여서 할인점의 이익 상품이며, ③ 소비자가 요리하기 용이하다는 점등을 소비증가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또 쇠고기는 닭고기, 돼지고기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변의 쇠고기 생산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최근 생산량 감소, 수입량 증가가 계속 되고 있어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 쇠고기의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3. 양돈 정책

ODEPA 농업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사탕을 제외하고는 칠레 정부의 국내 농업보호정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농업은 시장경제 안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 SAG 질병감시담당자에 따르면, 1970년대에 협동조합에 의한 생산자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농업정책이 시행되던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라틴계인 칠레의 국민성애에 적합하지 않았던 관계로 현재는 적어도 양돈 업계에는 남아 있지 않다. “인티그레이션이 소규모 생산자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폐업한 농가는 생산성이 낮은 등 경영 능력상의 문제 때문에 저절로 탈락했다. 20년 후에는 양돈 산업도 1개 회사에 의한 과점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현재 칠레의 경제정책은 칠레 경제개방의 적극적인 추진, 무역 확대, 수출 시장의 다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관세 인하, ② 지역 또는 자유무역권에 대한 적극적 참가, ③ WTO 추진, ④ FTA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ODEPA 관계자도 칠레에는 농업보호정책도 없고,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도 없지만,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간접적으로 농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자유무역의 추진은 칠레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양돈을 규제하는 것으로 환경 규제를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칠레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양돈도 환경 대책 없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환경 대책을 위한 비용은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4. 종합

칠레의 돼지고기 수출은 엄격한 위생 관리, 고도의 사육관리 기술, 그리고 수입국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규격의 제공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향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평가는, ① 국제 가격으로 보면 비교적 싸다, ② 품질은 미국산이나 덴마크산에 비하면 좋다, ③ 철저한 위생 관리로 질병이 적다, ④ 생산부터 부분육 가공까지 일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력이 분명하여 안심할 수 있고, 육질 개선 등도 용이하다는 것 등이다.

장거리 수송을 하는 탓에 대부분이 냉동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식당 등의 외식산업용이나 업무용, 햄 등의 가공용과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지만 대체로 평가는 좋은 편이다.

또 칠레산 돈육은 원산국에서 최종 수요자까지의 물류 체계가 이미 확립된 미국산이나 덴마크산에 비해 공급자에게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기 쉬운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한편, 대아시아 수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수송 거리가 길고, 미국을 경유해 3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① 냉장 수출이 어렵다, ② 선박운임이 북미에 비해 2배정도 비싸다, ③ 발주에서 납품까지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일본을 비롯해 한국, 중국 등 대아시아 수출의 확충이나 EU 신규 가입 후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동유럽국가들과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다른 남미 국가들과의 경쟁도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칠레는 2002년 후반 이후 EU, 미국, 한국 등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는 등 세계 3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 2004년 11월 일본과도 공동연구회 설치에 합의했다. 현재 칠레에 있어 일본은 미국의 뒤를 잇는 두번째 수출국이다. 칠레의 향후 FTA 체결과 함께 돈육산업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www.alic.lin.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